

“희생과 헌신의 광주정신으로 낡은 정치 바꾸겠다”

창당준비위 출범 하자마자 광주·순천 찾은 안철수 의원

가칭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의원이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11일 광주와 순천을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한 이후 안 의원이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안 의원과 더민주 문재인 대표 간에 야권 텃밭인 호남 민심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창당실무 준비단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일영영을 참배하고 향후 정치행보에 관한 각오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5·18 정신과 광주민주화 운동을 계승하여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명록을 남겼고, 안 의원은 한 위원장 성명 아래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방명록 작성을 대신했다.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권은희 의원은 이날 참배에 동행했고, 먼저 탈당한 문병호·김동철·임내현·김영환 의원도 함께 참배에 나섰다.

안 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광주정신은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국민의당을 시작하는 첫날에 희생과 헌신으로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상록화관에서 열린 ‘광주 집단지성과의 대화’행사에 참석, ‘호남 사위론’을 앞세워 호남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지역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등 각 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시절 카톨릭 학생회에서 순천 출신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를 처음 만난 점을 언급하며 호남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 인사 차별, 낙후된 경제가 내팽

권은희 등 탈당 의원들과

5·18 민주묘지 참배

호남 사위론 내세워 민심 잡기

야권 연대 기존 입장 고수

개쳐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디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차별을 받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호남의 소외와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 과제는 격차 해소와 통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야당과 창당을 추진중인 국민의당 차이점에 대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당, 민생 중심의 정당, 진보·보수 누구나 동의하는 합리적인 개혁 정당을 내세웠다. 기존 신당세력들과의 연대·통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대는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순서는 저희들이 먼저 중심을 세우고 이어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전국 정당이 될 가능성을 증명할 뉘 손을 잡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공천 방식부터 발표하고 방식에 따라 공천을 시행하겠다”면서 “생각이 달라도 목표가 같으면 함께 하지만, 공직 후보자 공천만은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광주를 떠나 처가가 있는 순천을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통해 신당 창당 이유와 향후 활동 계획, 총선 목표 등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순천경찰서를 찾아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등 호남민심에 다가서는 데 공을 들였다.

안 의원이 창준위 출범 바로 다음 날 광



“누리과정 공약은 먹튀 공약”

주를 찾는 것은 호남의 확고한 지지 확보가 신당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특히 더민주와 문 대표가 호남에서의 비판적인 여론의 벽에 부딪혀 고전하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호남 정치의 적자’라는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호남 일정을 마친 뒤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1박을 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에게 새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트 떨어졌으나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더 큰 폭의 하락세(1.6%포인트 하락한 18.0%)를 보이면서 3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9%포인트나 오른 18.1%를 기록, 문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격차로 앞지르며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 2014년 3월에 기록한 자신의 최고지지율(17.3%)을 갈아치운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누리과정의 공약 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라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진원·김성 군수 국민의당 발기인 참여 윤장현·주철현 시장 향후 행보 관심집중

단체장 더민주 이탈 시작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한 황주홍 의원의 지역구(장흥·강진·영암) 군수 2명이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특히 황 의원 이외에 더민주를 탈당한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되는 단체장들의 탈당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국민의당이 전날 배포한 1978명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다. 발기인 가운데 현직 자치단체장은 두사람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황 의원이 신당에 합류한 상황에서 의원과 군수의 당적이 같아야 예산확보나 현안사업 추진 등 균형을 이끄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다른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 군수도 “황 의원의 요청으로 발기인에 참여했다”며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무소속이지만 강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고 아직 국민의당이 공식 출범하지 않은 만큼 발기인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이중당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강 군수는 국민의당 공식 창당시기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예정이다. 이미 탈당하거나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들의 지역구 단체장들의 행보도 관심을 끌게 됐다.

황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의 전통평 군수는 발기인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 단체장 상당수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며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광주·전남 단체장 가운데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알려진 윤장현 광주시장과 주

철현 여수시장의 선택은 특히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이 발기인 대회 이틀날인 이날 광주와 순천을 방문하고 여수에서 묵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단체장과 안 의원의 회동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시장은 지난 연말 기자회견에서 “변화의 흐름을 보고 때늦지 않게 판단하겠다”며 탈당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수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 읍은 오는 13일 탈당 선언이 예상되는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여서 주 시장의 선택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광주는 윤 시장, 구청장이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동구를 뺀 4개 구청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남은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5곳 시장·군수는 무소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당지지도 새누리 36.1, 더민주 20.3, 국민의당 18.7%

대선주자 지지도 김무성·안철수·문재인 1%P내 점전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11일 지난 4~8일 전국 18~74세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결과, 정당 지지를 부문에서 새누리당이 36.1%로, 전주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최근 2주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했

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3%포인트 하락한 2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1.4%포인트 오른 18.7%로, 더민주를 바짝 뒤쫓았고, 정의당은 2.0%포인트 하락한 3.8%에 그쳤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3%로, 0.3%포인트

떨어졌으나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더 큰 폭의 하락세(1.6%포인트 하락한 18.0%)를 보이면서 3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9%포인트나 오른 18.1%를 기록, 문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격차로 앞지르며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 2014년 3월에 기록한 자신의 최고지지율(17.3%)을 갈아치운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The 밝은

제 2기

서포터즈모집

모집대상

광주전남 지역민이면 누구나

지원방법

밝은광주안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모집기간

2015.12.15(화)~2016.1.15(금)

활동기간

2016.1월~12월

활동내역

시민에게 눈 건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나눔

병원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봉사활동 참여 및 나눔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광주의 매력을 담은 시민 콘텐츠 공유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한 교류 미션 활동

혜택 및 지원사항

의료 봉사활동 참여시 서구자립봉사센터서 봉사시간 인증

우수활동자에 라식·라섹 수술, 생가름 등 눈매교정술 지원(영도 가능)

매달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

뉴미디어매체와 각종 IT기기활용 전문교육 제공

서포터즈 활동 수료증 지급

광주전남지역 문화행사 단체관람

문의 : 밝은광주안과 기획실 062-351-9938, 010-9073-9099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